

렌윈강(連雲港) 봉토석실묘의 역사 성격1)

박 순 발(충남대학교)

【 목 차 】

- I. 렌윈강 봉토석실묘에 대한 인식
- II. 렌윈강 석실묘와 백제 사비기 석실묘 비교
- III. 렌윈강 석실묘의 출현 배경
- IV. 맺음말

국문요약

렌윈강은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해상 교통로상의 필경지(必經地)이다. 백제가 중국의 창장(長江)유역의 동진·남조와 공식외교 활동을 개시한 시기는 물론이고, 특히 고구려가 랴오둥반도 일대를 영역화한 5세기 초 이후 기존 항로 이용이 제약을 받으면서 등장한 서해 횡단 항로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았다.

렌윈강 지역에서 발견된 “토둔석실묘(土墩石室墓)”는 그 구조나 평면 형태로 보아 7세기 전반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 사이에 중서부 연해지역에 유행하였던 묘제와 가장 유사도가 높다. 그 이면에는 렌윈강이 가지는 고대 항로상의 역할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 횡단 항로를 위한 중요한 선급(船給) 활동에 종사한 이들 가운데 백제계 주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660년 백제 멸망과 함께 백제인 1만 2천~2만명이 중국으로 압송되었던 사실도 주목되어야 한다. 당시 이들이 상륙한 지점은 지금의 렌윈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당시 당(唐) 황제가 있던 낙양(洛陽)으로 이송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며, 그 가운데 다수는 기왕에 백제계 항로 종사자들이 정착하고 있던 렌윈강 일대에 안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중국 어디에서도 유례(類例)가 없는 한반도 백제계 석실묘가 렌윈강 일대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고고학적 사실은 당시의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문은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주제어 : 고대 한중 해상교통로, 렌윈강(連雲港) 봉토석실묘, 한반도, 삼국시대(三國時代) 석실묘, 백제(百濟), 당(唐)

I. 렌윈강 봉토석실묘에 대한 인식

렌윈강(連雲港)은 화이허(淮河) 하류의 수많은 분지천의 하나인 쉰무허(新沐河)가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의 충적평야에 해당한다. 쉰무허 남쪽에는 진핑산(金屏山)·윈타이산(雲臺山)·이루산(伊蘆山) 등이 남서-동북 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이들 산지에 다수의 봉토석실묘가 분포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탕왕동(唐王洞)·짱권동(藏軍洞)·투윙즈(土瓮子)·투동즈(土洞子)·꾸무장(古墓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유구가 인공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20세기 초 이래 존재하였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진시황(秦始皇)의 장생불로(長生不老) 기원을 위해 축조한 풍수墩(風水墩), 혹은 관방용 봉화墩(烽火墩) 등 추정에만 머물러 있었다. 1954년 3기를 발굴조사한 결과 석실 내부에서 육조(六朝) 청자완이 출토되어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발굴자는 육조 이후의 군사시설로 판단한 바(朱江 1955) 있다. 이 유구가 무덤이라는 인식은 1980년대에 들어와 점차 확산되기에 이른다. 1989~1990년 사이 남경박물관(南京博物院)과 렌윈강시박물관 연합으로 분포



조사와 더불어 21기의 석실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분포조사시 편호(編號)한 석실묘는 200여기였으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약 790기에 달한다(張學鋒 2011). 지금도 분포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2월에 1기가 더 구체 조사되면서 현재 22기가 발굴조사 되어 대략적인 시기나 성격이 어느 정도 드

*google earth캡처



*렌원강시박물관 설명판 수정

【그림 1】 렌원강 위치 및 지형

시간적인 연속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일한 계보로 파악할 수는 없다(紀達凱·陳中 1993).

필자가 렌원강 석실묘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2011년 7월 렌원강시박물관을 참관하던 중 석실토돈묘의 사진 설명판을 접한 것이 처음이다. 설명판에는 이 유구의 시대를 춘추 혹은 당(唐)이라는 매우 특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난징대학의 허윈아오(賀雲翱) 교수의 소개로 만난 렌원강중점문화보존연구소(連雲港重點文物保護研究所) 까오웨이(高偉) 소장으로부터 이 지역 석실토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교시 받으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석실토돈에 대한 필자의 첫 인상은 한반도의 백제 사비기 묘제와의 유사성이었다. 그러한 소감을 까오웨이 소장에게 피력한 결과 언제 한번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 이후 2011년 9월 난징 장닝동진박물관(江寧東晉博物館) 개관 기념 학술회의에서 난징대학 장쉐핑 교수가 렌원강 석실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동남문화(東南文化) 2011년 4기에 발표한 논문에서 “렌원강 토돈석실묘는 당대(唐代) 신라 이민의 무덤”이라 주장하였다(張學鋒 2011). 이 견해는 종래 그 기원을 중국 내에서 찾으려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검토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할 것이다.

아무튼, 까오웨이 소장과의 합의한 현지 공동조사 계획에 따라 2011년 10월 중순 마침내 필자와 이성준·이재욱 등 3인이 까오웨이 소장을 비롯한 렌원강 연구소 측 조사단

러났다. 조사를 담당하였던 렌원강시 박물관의 지다카이(紀達凱·陳中 1993)에 의하면, 석실묘의 조영시기는 초당(初唐)부터 만당(晚唐)에 이르며, 일부는 수대(隋代)까지 소급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렌원강 지역 석실묘는 당대의 묘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기 여타지역에는 이와 비교되는 묘제가 전혀 없어 그 기원은 베일에 싸여 있다. 춘추시대의 토돈묘(土墩墓)가 타이후(太湖) 주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점을 의식하여 그와 맥이 닿는 것으로 보는 입장(林留根 2000)이 있으나

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이 2일에 불과하였지만, 석실토돈의 구조와 입지적 특징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현지 공동조사 대상 유적은 2곳이었는데, 차오양진(朝陽鎭) 시좡촌(西莊村) 따시산(大西山) 석실묘군(6기)과 한리촌(韓李村) 샤오뚜안산(小團山) 석실묘군이였다. 후자는 시간 관계상 17기만 관찰하였지만 일대에는 파괴된 것을 포함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석실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때의 조사를 통해 필자는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렌윈강 석실묘가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구체적으로 신라가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와 더욱 관계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II. 렌윈강 석실묘와 백제 사비기 석실묘 비교

1. 렌윈강 석실묘의 구조적 특징

(1) 따시산 석실묘군

이 고분군은 표고 200m 가량 되는 암산의 능선부 및 남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표토가 매우 얇아 석실은 암산의 지표면 위에 축조된 지상식도 있지만, 석실의 하단이 지하에 위치한 반지하식도 있다. 봉분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원형으로 돌을 쌓아 만든 모습이 마치 고구려의 봉석석실묘(封石石室墓)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석실의 평면형은 약간 세장한 느낌의 장방형(길이 2.5m, 폭 1.3m)이고, 연도는 좌편재·우편재·중앙연도 등 다양하다. 석실 벽의 구축 방식은 하단에 비교적 큰 대석을 세우고 그 위는 할석을 쌓았으며, 오벽(奧壁)은 암반을 다듬어 이용한 것도 있다. 천장은 비교적 큰 대형 판상석을 덮었고, 연도와 석실사이에는 문광(門樞)이 있다. 고분군과 인접한 산 정상부에는 석축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져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의 윤곽을 알기 어렵다.

(2) 소뚜안산 석실묘군

따시산 묘군으로부터 남서 방향으로 약 3km 가량 떨어진 표고 150m 되는 지릉(枝陵) 능선부 및 산사면 양측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조사한 17기 대부분은 반지하식 또는 지하식이었지만 지상식도 있다. 석실은 역시 세장한 느낌의 장방형 평면이며, 연도

의 위치는 좌편재·우편재·중앙연도가 공존하고 있다. 석실 양 장벽은 하단에 비교적 큰 장대석을 사용하고 천장과 연결되는 부분은 할석을 한단 정도 고여 비교적 큰 편평석을 덮어 천장을 만들었다. 현실과 연도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모두 문광을 갖추고 있고, 일부 봉토가 남아 있는 경우, 연도의 끝선과 일치되는 지점에 원형으로 호석을 돌려 봉분을 조성하였다 【그림 3의 4】. 석실의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도 있으나 시상석을 깔 것도 있다.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석실의 크기는, 3.75x1.5m, 3x1.7m, 3.7x2.1m, 3.4x1.5m 등이며, 석실의 높이는 1m 내외이다. 석실의 벽에는 석회를 바른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단순 석축으로 마감하였으며, 벽석으로 사용된 석재 가운데 치석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2】 파시산 석실묘 구조 <①석실입구 ②석실 오벽 상태 ③연도문광>



【그림 3】 샤오뚜안산 석실묘 구조 <①13호 석실 오벽 ②12호 석실 오벽 ③14호 석실 문광, ④15호 석실과 봉분 호석 ⑤17호 석실 연도 ⑥17호 석실 장벽>

(3) 기타 특징

필자가 현지 조사에 참가한 것은 모두 23기에 불과하나, 이전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렌원강 지역 석실묘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먼저, 연도의 좌우측에 이실(耳室)이 달린 것도 있다. 원타이구(云臺區) 난윈타이향(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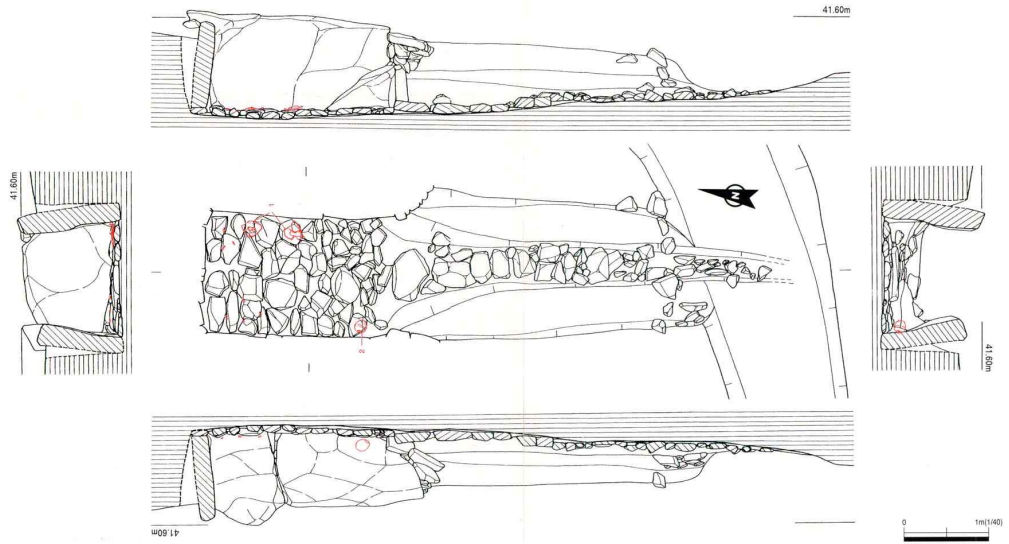
云臺鄉) 관리촌(關里村) 화귀행(花果行) 2호분이 그 예이다(紀達凱·陳中 1993). 이실의 가구법에 말각조정(抹角藻井)을 채용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이 시기의 말각조정은 고구려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워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와의 관련성은 이 지역의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지조사에 함께 참여한 자원 봉사자의 교시에 의하면, 원타이산 가운데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베이원타이산(北云臺山)의 주봉(主峰)을 “까이쭈원봉(蓋蘇文峯)”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개소문은 고구려의 연개소문(淵蓋蘇文)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제보한 주민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렌윈강 석실묘 가운데는 고구려계 주민과 관련되는 것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표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굴된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철제 관정(棺釘)이 출토되었다.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삼국시대 석실묘에서 목관을 사용한 것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 역시 석실묘의 형태와 더불어 피장자의 계통을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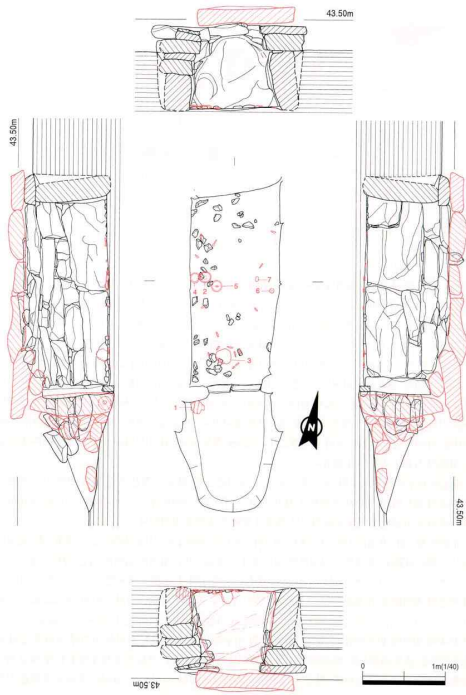
2. 사비기 백제 석실묘의 양상(樣相)

600~660년 사이의 백제 석실묘 가운데 렌윈강 지역 석실묘와 가장 유사한 예들은 충남 서해안 지역의 서천(舒川)·보령(保寧)·홍성(洪城)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보령 연지리(蓮芝里) 고분군이 가장 양호한 자료이므로 여기서는 이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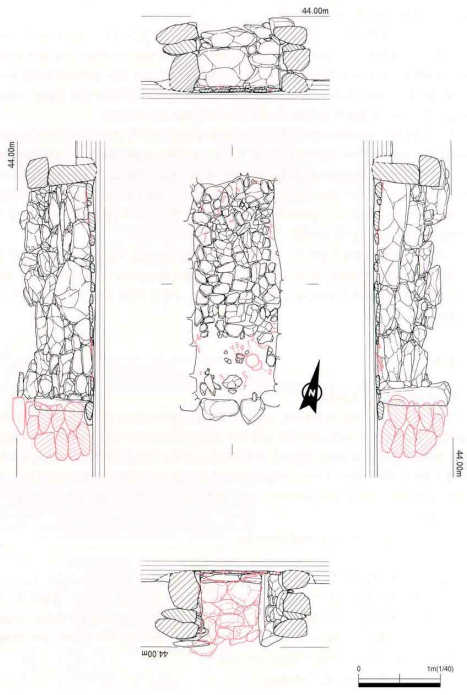
해발 240m 산의 남동사면에 50기가 분포하고 있는데, 장방형 평면의 횡혈식석실묘로 구성되어 있다. 석실의 축조 재료 및 축조 방식에 의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I형(型)은 양 장벽을 대형의 판석 1~2매로 구축한 후 천장을 판석으로 덮은 것이다. 석실의 거의 전부가 지하에 위치하는 지하식(地下式)이며, 문광(門框)을 갖추고 있다 [그림 4]. II형은 장벽의 하단부는 비교적 큰 판석을 세웠고 그 위에 할석(割石)을 3~5단 정도 쌓아 벽을 구축한 뒤 판석으로 천장을 덮었다. 석실의 하단부는 지하이나 상부는 지상에 노출된 반지하식이다. 바닥에는 판석이나 자갈을 깔 것도 있으나 생토(生土)를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으며, 역시 문광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연지리 2호분이 대표적이다 [그림 5]. III형은 장벽을 할석으로 축조하고 오벽(奧壁)은 1매의 판석으로 마감한 것으로써 석실 전체가 지상에 위치하는 지상식이다. 역시 문광을 갖추고 있다.



【그림 4】 연지리 I형 석실의 구조(연지리 3호분 : 李弘鍾외2002)



【그림 5】 연지리 II형 석실 구조
(연지리 2호분 : 李弘鍾외 2002)



【그림 6】 연지리 III형 석실 구조
(연지리 1호분 : 李弘鍾외 2002)

보고서에서는 상이한 3유형의 석실이 시기적인 선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I→II→III형 순으로 변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품은 거의 대부분이 토기인데, 삼족기(三足器)·개배(蓋杯)·뚜껑·직구단경호(直口短頸壺)·반구호(盤口壺)·장경병(長頸瓶)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직구단경호와 삼족기 등 시기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종들의 세부 기형 변화에 근거해 보면, I형과 II형이 비교적 이르고, II형과 III형이 그보다 늦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I형과 III형은 공존하지 않지만 II형은 이들과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석실 구축 재료 및 방식상의 차이는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II형의 경우 부여 염창리(鹽倉里) 고분군 II-14호분(李南奭의 2003 : 85)처럼 철제 모액광(帽額框)¹⁾이 출토되고 있어 중하 관리(官吏)급의 묘제로 이해할 수 있다.

사비기 석실은 규모, 구축 석재 및 가공 정도에 따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실의 단면이 육각형이고 치석(治石)된 판석을 사용하여 250x125cm의 규격화된 것, 규격은 거의 같으나 가공하지 않은 판석이나 할석으로 축조된 것, 석실의 길이는 위의 것들과 같으나 폭이 좁아진 것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신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山本孝文 2006 : 110~115). 연지리를 비롯한 보령·서천·홍성·청양 등 중서부 서해안 일대의 석실묘들은 길이에 비해 폭이 좁은 것이 많으며, 치석한 판석 조의 것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지역색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집단의 피장자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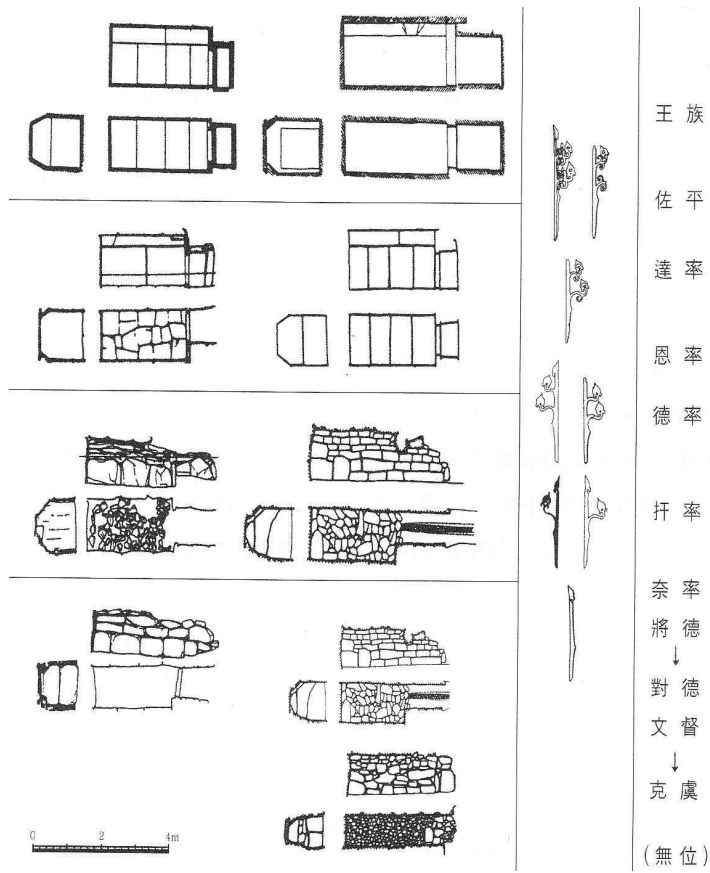
3. 렌윈강 석실묘와 사비기 백제 석실묘의 상사성(相似性)

한반도 석실묘 가운데 렌윈강 석실묘와 가장 높은 상사성을 보이는 것은 사비기 백제 석실묘로 판단되는데,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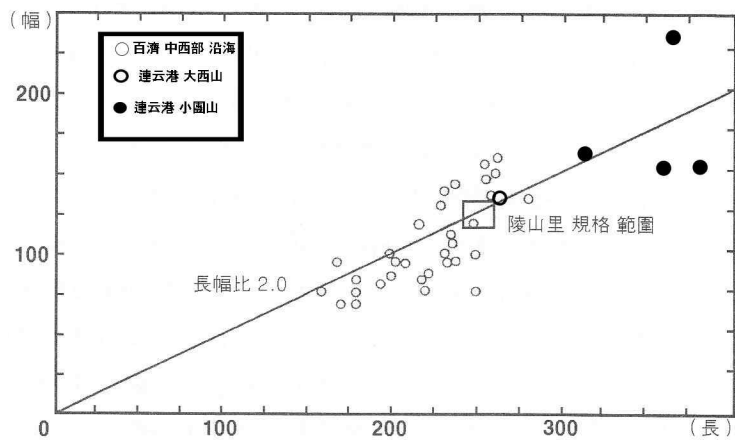
우선, 석실 전체의 평면형에서 백제 사비기 석실은 장폭비가 2:1에 가까운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동시기 고구려는 방형이 주류이고, 신라 역시 그러하다. 렌윈강 석실의 경우 백제와 가장 가까운 장방형 평면형이어서 두 지역간의 상사성이 가장 높다.

다음, 석실벽의 구축 방법과 형태에서도 백제와 렌윈강 사이의 상사성이 가장 높다. 장벽 중하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천정부와 연결되는 상단부만을 내경(內頃)시킨 점이 그러하다. 단벽은 입면(立面) 형태가 6각형에 가까운 1매 판석으로 구축한 것이 사비기 백제 석실의 특징인데, 렌윈강 역시 그와 유사하다. 천장석의 형태나 가구 방식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비교적 대형의 편평석을 양 장벽에 걸쳐 가구하는 방식은 동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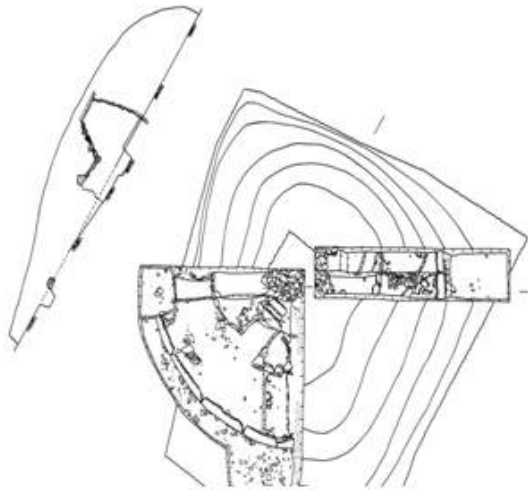
1) 흔히 “관모테”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관(冠)은 상투부분을 갈무리하는 것을 말하며, 모(帽)는 관 바깥을 덮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역삼각형의 철제틀은 모의 전면을 장식하는 틀이므로 모액(帽額)틀이라는 말이 적당하다. 그러한 의미로서 “모액광(帽額框)”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림 7】 백제 사비기 석실묘 형태와 관위(山本孝文2006)



【그림 8】 백제 사비기 중서부 연해지역 석실묘와 련윈강 석실묘의 장폭비 비교(山本孝文2006 가필)



【그림 9】 경주 용강동 고분 호석과 석실
(金元龍의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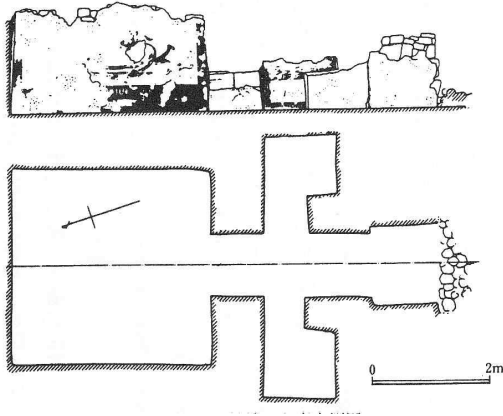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와 신라는 석실의 평면형이 방형에 가까우므로 4벽을 동시에 내경시켜 좁아진 천장부를 비교적 소형의 편평석을 덮어 마감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구려는 4벽의 모서리 부분을 각을 죽여 들어쌓아 좁히는 이른바 말각조정(抹角藻井)으로 가구하는 것이 특징임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그리고 석실 내부의 시설면에서도 렌윈강은 백제 사비기와 가장 유사하다. 신라의 경우는 현실 바닥보다 높은 시상(尸床)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백제는 바닥 전면을 부석(敷石)하거나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렌윈강 역시 그러하다.



【그림 10】 부여 청산성 통일신라 석실묘와 출토유물



【그림 11】 평양 고산리 9호 석실묘
(小場恒吉外1938)

한편, 렌원강 석실과 백제 사비기 석실 사이에 약간의 상이성(相異性)도 발견된다. 렌원강 석실묘의 봉분 가장 자리는 호석(護石)으로 마감하였는데 비해 백제 사비기 석실에서는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오히려 7세기 후반~8세기 전엽의 신라 석실묘 봉토와 유사하다. 전술한 것처럼 석실의 구조 및 형태상으로 차이가 커서 계통적 연관성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최근 부여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시기의 석실묘에서도 호석이 확인되는데, 석실

의 평면형이나 구축 방식은 백제 사비기 이래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실이 발견된 장소는 사비도성의 외곽(外郭) 내부에 해당하는 청산성(靑山城)인데, 출토유물 가운데 녹유 절복완(折腹盥)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절복완은 당대(唐代) 서방(西方) 기원 금속기 혹은 도자기에서 오래된 기종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예는 영태공주(永泰公主墓 : 706년 안장) 출토품이며, 대체로 7세기 말~8세기 초에 유행한다(齊東方 1999 : 66). 청산성 석실묘에는 중장연속마제형 인화문이 있는 완도 있다. 신라 인화문 토기 편년안에 의하면 7세기 2/4분기~3/4분기 사이로 비정(崔병현 2011)되지만, 함께 나온 녹유 절복완으로 보면 8세기 1/4분기 무렵 이전으로 소급되기는 어렵다.

아무튼, 청산성 석실묘는 8세기 전반으로 비정할 수 있는데, 이 무렵까지 석실의 평면형은 사비기의 묘제 전통이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분 주변의 호석을 설치한 점은 당시의 유행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렌원강 석실묘의 호석은 동시기에 유행하던 신라 무덤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렌원강 석실과 백제 사비기 석실묘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일부 석실묘에서 이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실은 고구려 석실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유행 시기는 5세기~6세기 후반 사이이며, 그 가운데 가장 늦은 것으로 비정되는(東潮 1997 : 195) 것이 평양 고산리(高山里) 9호분(小場恒吉外 1938)이다. 기존의 렌원강 석실묘 발굴조사 결과로만 수대(隋代)까지 소급될 여지가 있어 이른 시기의 석실묘에 고구려 묘제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말각조정 천장가구법이 함께 채용된 점으로 보아 고구려 묘제의 영향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III. 렌윈강 석실묘의 출현 배경

1. 백제와 렌윈강 지역

문헌사료에 의하면 백제는 371년 혹은 372년부터 장강유역의 동진(東晉)과 직접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진서(晉書)』·『송서(宋書)』·『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전하는 조공(朝貢)·책봉(冊封) 등 공식 교섭 내용을 분석한 연구(俞元載 1993)에 따르면, 373년(삼국사기 : 백제 조공), 379년(삼국사기 : 백제 조공), 384년(진서 및 삼국사기 : 백제 조공), 386년(진서 : 동진 책봉), 406년(삼국사기 : 백제 조공), 416년(송서 및 삼국사기 : 동진 책봉) 등 여러 차례의 교섭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요동반도(遼東半島)에 대한 관할권에 변화가 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故國原王)2(385)년조·광개토왕(廣開土王)11(401)년조·동왕 14(404)년조 등의 기사에 의하면 385~404년 사이에 요동지역이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백제와 고구려가 대립·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요동반도를 경유하는 교섭로는 채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 영향권에 속하는 항로를 우회하는 신항로를 모색하였을 것인데, 이것이 북로(北路) 남선(南線) 항로이다. 종전에 한반도 서해안→요동반도→산둥반도로 이어지는 북로 북선(北線) 항로에 비해 서해 횡단의 위험이 따르는 항로이기는 하나 훨씬 단축된 거리라는 장점이 있는 항로이다. 이 항로의 구체적인 여정(旅程)은 한반도 서해안 강화만(江華灣)→서해 횡단→산둥(山東) 쟈오동반도(膠東半島) 동남단 청산자오(成山角)→산둥 동남 연해→렌윈강→장쑤(江蘇) 연해→창장(長江)하구→젠강(建康)으로 이어진다. 북로 남선 항로는 유송(劉宋) 시기에 개척된 것으로 보는 견해(周裕興 2010 ; 孫光圻 2011)가 일반적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도 고구려가 요동반도에 진출한 5세기 초 이후에는 이 항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박순발 2012).

이 항로에서 렌윈강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개로왕(蓋鹵王) 18(472)년 북위 평성(平城)에 파견한 사신의 사행로(使行路)이다. 사행길의 구체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으나, 백제 사신의 귀국길을 수행한 동사(東使) 소안(邵安)의 전직이 패군(沛郡) 태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위서(魏書)』 열전 제32권 설야(薛野)·호자(虎子)전에 의하면 소안이 패군태수로 재임할 무렵 서주자사(徐州刺史) 호자가 남조와 교통(南通敵虜)하였다고 무고한 죄로 사사(賜死)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패군은 지금의 장쑤성 북부에 위치한 내륙수운의 요충지 패현(沛縣)이다. 호자가 서주자사로 부임한 것은 480~491년 사이므로 소안이 동사의 임을 맡았던 472~475년 무렵

과 시기적으로 가깝다. 패군은 렌윈강 - 쉬조우(徐州)를 경유하여 하북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므로 당시 백제 사신이 북로 남선 항로를 이용해 렌윈강에 도착하였기에 사신의 귀국길에 귀환사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朴淳發 2010).

아무튼, 렌윈강은 5세기 초 이래 열린 서해 횡단 항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배경으로 인해 백제인들은 렌윈강 지역에 왕래가 빈번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대해 횡단을 위한 준비와 순풍을 기다리는 등의 항해 관련 최종 준비를 하는 곳으로서 렌윈강의 역할은 컸을 것이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항해를 위해 렌윈강의 해도(海島)에서 무사 항해 기원 제사를 지내고 현지의 신라 뱃사람(水手)들과 항해 일정을 상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서해를 횡단하는 항해에 직업적으로 고용되어 물길을 안내·도해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李洪甫 1990). 이러한 통일신라 뱃사람들의 활동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이 항로를 이용하였던 백제인들도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렌윈강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인들은 그러한 백제인들의 역할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렌윈강중점문물보존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석실묘 인근에 위치한 산성 내부 저장구덩이(灰坑)에서 출토된 유물이 그것이다. 까오웨이 소장의 후의로 실견한 바 필자가 보기에는 백제토기 파편으로 판단되는 토기편이 수대(隋代) 청자편과 함께 나왔다고 한다 【그림 12】 .



【그림 12】 렌윈강 회갱 출토 추정 백제계 토기와 수대(隋代) 청자(렌윈강중점문물보호연구소 소장)

2. 백제 유이민과 렌윈강

660년 7월 백제 사비도성이 나당(羅唐)연합군에 의해 함락된 후 왕과 대신을 비롯한

1만여명의 백제인들이 당으로 압송되었다. 문헌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는 다르지만, 왕을 비롯한 50여인은 당시 황제가 머무르고 있던 낙양(洛陽)까지 압송되어 조당(朝堂)에서 황제를 배알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만 2천 혹은 2만명에 이르는 일반 백성들은 적당한 곳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 당시의 항로 역시 서해를 횡단하는 북로 남선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이들은 렌윈강을 거쳐 낙양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다수의 일반 백성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기왕에 항해에 종사하는 백제인들이 있던 이곳에 안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백제지역의 묘제와 유사한 석실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 설령 다른 곳에 안치되었을 지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제인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이곳으로 이주하여 왔을 수도 있다. 아무튼, 그간의 경과를 지금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고고자료로 보는 한 백제계인들이 렌윈강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반도가 신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 이들의 국적은 자연스럽게 신라가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현지에서는 신라인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엔닌 활동시기에 이곳은 신라 뱃사람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항해와 무역에 종사하던 신라인 집단은 렌윈강 뿐 아니라 산동~절강에 이르는 연해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백제계 묘제가 확인되는 곳은 이 곳 밖에 없는 점은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
- 2) ①《三国史记》卷 第二十八 百济本纪 第六 义慈王 二十年 (公元660年)
 (前略) 定方以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及大臣将士八十八人、百姓一万二千八百人送京师 (后略)
- ②《三国史记》卷 第五 新罗本纪 武烈王 7年 (公元660年)
 定方以百济王及王族臣寮九十三人、百姓一万二千人, 自泗泚乘船迴唐
- ③《三国史记》卷 第四十二 列传二 金庾信 中
 (唐人) 虏百济王及臣寮九十三人、卒二万人, 以九月三日自泗泚泛船而归, 留郎将刘仁愿等镇守之。定方既献俘, 天子慰藉之。(后略)
- ④《三国遗事》卷 第一 纪异篇 太宗春秋公条
 定方以王义慈及太子隆、王子泰、王子演及大臣将士八十八人, 百姓一万二千八百七人, 送京师。
- ⑤《舊唐书》卷 第一百九十九 上 列传 百济传
 虏义慈及太子隆、小王孝、演、伪将五十八人等, 送於京师。
- ⑥《日本书纪》卷 第二十六 齐明天皇 六年 秋七月条
 将军苏定方等所提百济王以下太子隆等诸王子十三人、大佐平沙宅千福、国办成以下七人并五十许人奉进朝堂 (后略)
- ⑦《日本书纪》卷 第二十六 齐明天皇 六年 同十一月条
 百济王义慈、其妻恩古、其子隆等, 其臣大佐平千幅、国办成、孙登等凡五十余人, 秋於七月十三日为苏将军所捉而送。

한편 렌윈강 지역 석실묘에서 관찰되는 고구려적 요소로 보아 고구려인 역시 이곳에 내주(來住)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68년에 멸망된 고구려 유이민 일부가 백제인이 일찍부터 기반을 잡고 있던 이곳에 정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모두 신라계 주민들로 융합되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렌윈강은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해상 교통로상의 필경지(必經地)이다. 백제가 중국의 창장(長江)유역 동진·남조와 공식외교 활동을 개시한 이래 그 위치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며, 특히 고구려가 라오둥반도 일대를 영역화한 5세기 초 이후 북로 북선 항로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모색한 서해 횡단 항로에서 렌윈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렌윈강 지역에서 발견된 “토돈석실묘(土墩石室墓)”는 그 구조나 평면 형태로 보아 7세기 전반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 사이에 중서부 연해지역에 유행하였던 묘제와 가장 유사도가 높는데, 그 이면에는 서해 횡단 항로를 이용하였던 백제와의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해를 건너는 항해를 위한 제반 준비 작업에 종사하였던 백제인의 존재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660년 백제 멸망과 함께 중국으로 압송된 1만 2천~2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백제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안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백제에서 바다 건너 첫 번째 상륙지점인 이곳에도 다수의 백제인들이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인들도 이 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이다. 한반도가 신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 이들은 신라인으로 불렸을 것임은 당연하다. 렌윈강 석실묘를 신라 이주민의 묘제로 이해한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고고자료로 보는 한 그 기원은 백제계 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朴淳發 2010, 「北魏 平城 斷想」, 『百濟學報』 3.
- 박순발 2012, 「考古資料로 본 山東과 韓半島의 古代 海上交通」, 성주탁 교수 추모논문총간행위원회편 『백제와 주변세계』, 진인진.
- 金元龍의 1990, 『慶州龍江洞古墳發掘調查報告書』,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查團.
-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서경.
- 李南奭의 2003, 『鹽倉里古墳群』(本文), 公州大學校博物館.
- 李弘鍾의 2002, 『蓮芝里 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 최병현 2011, 「신라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 59.
- 紀達凱·陳中 1993, 「連雲港地區土墩石室遺存時代性質新考」, 『東南文化』 1期.
- 李洪甫 1990, 「古代連雲港地區的對朝交通」, 『東南文化』 5期.
- 林留根 2000, 「江南石室土墩」, 『江蘇考古五十年』, 南京出版社.
- 張學鋒 2011, 「江蘇連雲港“土墩石室”遺存性質芻議」, 『東南文化』 4期.
- 齊東方 1999, 『唐代金銀器研究』, 社會科學院出版社.
- 朱 江 1955, 「吳縣五峯山烽燧墩清理簡報」, 『考古通訊』 4期.
- 東 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小場恒吉外 1938, 「高句麗古墳調查」,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

A Historical research on Lenyungang(連雲港) stone chamber tombs in Jangsu, China

Lenyungang(連雲港)where is on the critical marine transportational route, relate Korean peninsular with southern main land China, located in uppermost northern edge of Jangsu(江蘇). Especially, early 5th century onward existing so called "north line northern route" that pass through Korean peninsular northwestern coast shore via Lianing(遼寧) peninsular to Sandong(山東) had been blocked by Koguryo(高句麗), Lenyungang's strategical importance got higher.

At that time Backje(百濟) had frequently dispatched diplomatic envoy to Southern governments of mainland China, who assumed to via Lenyungang to Jiankang(建康) route called "north line southern route". Under these historical situation Lenyungang played role of main catering port, resulted in some Backje people colonizing in that place engaging preparing for long distance sailing across West sea.

High similarity of Lenyungang region stone chamber tomb with Korean peninsular ancient stone tomb, particularly with first half 7th century of Backje supposes such interesting historical background. More noteworthy fact is that A.D 660, on the Backje's collapsing by Tang(唐) and Shilla(新羅) union force, over twelve thousand Backje people had taken to Tang, China. They also was Assumed to pass through Lenyungang port, some people was to reside in Lenyungang.

Until now nowhere but Lenyungang found stone chamber tomb. This unique archaeological phenomenon convincingly was related with above mentioned historical background.

key word : ancient marine transportation route, Lenyungang(連雲港) stone chamber tomb, Korean three kingdom period stone chamber tomb, Backje(百濟), Tang(唐)